Jour. Agri. Sci.
Chungnam Nat'l Univ., Korea
Vol.35(2): 237~245 (2008)

중국 밀감 농작업에 있어서 노동력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김재홍[1*] · 반려[2]

A Study on the Labor Utilization of the Orange Farming Farmhouseholds in China

Kim-Jai Hong[1*] · Pan-Li[2]

ABSTRACT

China's agriculture is changing now, especially in terms of cash farming. Orange farming is one of the main cash crops.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bor utilization of orange farming of farm households in Chin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rm size increasing is an essential measure to save labor. Big farm requires less than 20% of labor inputs than that of average size farm. Second, in the aspect of the employment labor, while male labor accounted for the 5% of total labor, female employment labor took up much more, which amounts to almost half of family labor. Third, the average wage of men is almost twice as much as that of women's wage, and it is sharply increasing. Fourth, Chinese farm households put more labor input than Korean farm households in orange production, which is due to the substitution of capital for labor.

Key words : orange farming, labor utilization, employment labor, family labor

2008년 2월 20일 접수; 2008년 6월 24일 채택

[1]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Korea/ ZIP:305-764)
[2]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 교신저자: 김재홍(E-mail: jaihong@cnu.ac.kr, Tel: 042-821-6747)

Ⅰ. 서론

최근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농업부문에서도 괄목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지역에 적합한 작물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우세농산물 지역배치라고 하는데 지역배치의 원칙으로는 국내 수요량이 많고 생산 잠재력이 있으며, 지원과 발전에 따라 충분히 수입 농산물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농산물과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다.

밀감은 중국이 원산지이자 생산대국으로 재배면적은 세계 1위, 생산은 세계 3위이나 가공용 품종이 적어 오렌지쥬스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밀감도 우세농산물 지역배치계획에 의거하여 강서성, 사천성, 중경시 등 장강 중상류 6개성의 13개 시 지역을 선정하여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시장을 건설하는 등 판매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서성 려천현의 경우 기후와 환경은 밀감 재배에 적합하다. 1980년대부터 려천현에서는 밀감의 재배를 시작하였지만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90년대 강서성 일대의 밀감농장이 서리 피해를 받아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밀감을 재배하고자 하는 성향을 억제하였다. 근년에 들어 무주시를 중심으로 밀감생산의 전망이 좋아지고, 밀감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많은 이익을 얻어 밀감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려천현도 밀감 재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려천현은 밀감 종식면적이 1.4만무까지 되고 열매가 달린 면적 또한 0.6만무에 이르게 되고 생산량도 4000톤이 되었다. 2007년에는 밀감 재배 면적을 6000무 증가하여 전현 밀감재배 총면적이 2만무에 달하게 되었다. 나아가 려천현은 밀감산업 5개년발전계획을 제정하여 2011년까지 전현 밀감 종식면적은 3만무까지 되고 열매가 달린 면적이 2만무가 되며, 생산량은 1.5만톤에 이르게 되도록 계획을 세웠다.

려천현은 강서성 무주시의 작은 현인데 도시와 경제 발전이 낙후되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또 려천현에서는 농민의 밀감 재배 기술이 낮아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의 밀감판매수단이 일률적이고 무엇보다도 밀감 가격을 판매상에게 의존하고 있어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밀감재배의 노동력을 분석하여 밀감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려천현 나아가 무주시와 강서성의 농가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은 전체적으로 농업노동력이 과잉된 상태에 있어 노동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나아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중국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는데 기본이 되는 생산비연구 특히 노동력 분석과 이의 절감을 통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밀감농가의 노동력 투입을 분석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둘째, 밀감농가에서 자가노동력과 고용노동력이 어떤 작업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며, 셋째, 고용노동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밀감재배농가와 노동력 투입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II. 조사지역 및 조사농가

1. 조사지역 개황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려천현은 중국 강서성의 동남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동쪽에는 무이산맥이 있어 강서성에서 복건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강서성은 장강의 하류지역으로 면적은 16.7만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43,684천명이며, 이 중 농업인구는 26,294천명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다. 강서성에는 11개의 도시와 99개의 현이 있다. 강서성의 북부는 평탄하나 동서남부는 산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중부는 구릉지대로 파양호가 있다. 기후는 아열대 습윤기후로 년간 강수량은 1300-2000mm이다.

려천현의 면적은 1,728평방킬로미터이고 6개 읍, 8개 향이 있으며, 총 인구 24.3만명이고 그 중 도시인구가 5.3만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다. 려천현은 농림자원이 풍부한데 2007년 현재 경지가 38만무, 임산지가 190만무로 중산간지에 속하며, 삼림피복율이 62%에 달하고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내수어업자원도 풍부하여 어산물 생산면적이 7.5만mu에 달하고 있다.

강서성 농가의 일인당 평균경지면적은 1무이며, 려천현 농가의 일인당의 평균경지면적은 2무이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의 경지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그런데 려천현은 산지면적이 190만무가 있고, 산지면적이 농민에게 부분적으로 분배되어 있어 농민이 과수원으로 산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대상지역의 밀감재배면적은 경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려천현은 아열대 지역인데 년 평균 온도가 18.3℃ 되고 겨울에 평균 온도가 6.1℃ 된다. 년 평균 강수량은 1700mm이고 년 평균 일조시간은 1,928.2시간이고 서리가 안 내리는 기간이 269일이다. 려천현의 기후가 겨울이 짧고 따뜻하여 봄이 일찍 오고 가을이 늦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물의 성장 기간이 길어 적산 온도가 높고 열량 자원이 풍부하는 특성이 려천의 밀감 재배에 유익한다. 2006년 말 현재 려천현은 밀감 종식면적이 1.4만무이고, 열매가 달린 면적이 0.6만무이며, 생산량이 4,000톤이 넘는다. 또 2007년에 밀감 재배 면적은 6,000무가 증가하였으므로 전현 밀감재배총면적이 2만무가 된다. 이와 같이 려천현의 밀감재배면적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려천현은 밀감산업5년발전계획을 제정하여 2011년까지 전현 밀감 종식면적은 3만무까지 되고, 열매가 달린 면적이 2만무가 되며, 생산량이 1.5만톤에 달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 조사농가 선정 및 조사방법

조사 농가는 무주시 려천현의 4개 향의 밀감 재배농가를 무작위적으로 36호를 선정하여, 2008년 1월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4개 향의 지역적 특성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선정되었다. 조사방법은 밀감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3. 면적단위

중국의 면적단위는 무이다. "畝"자는 중국 하, 상, 주의 정전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현재에도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단위이다. 1무는 667㎡와 같으며 한국의 200평과 같다. 1 hectare는 10,000㎡이며 이를 무 단위로 보면 15무이다.

III. 조사농가개황

조사농가는 려천현의 밀감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36호의 농가를 조사했으며 규모를 10무 이하(10무포함), 11-19무, 20무 이상(20무포함)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1은 조사대상의 농가호수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농가의 평균경지면적은 29무 정도로 약 2ha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중 73%에 밀감을 재배하고 있어 밀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다른 작물로는 벼와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다.

밀감을 20무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평균농지면적이 37무로 2ha를 상회하며, 그 중 80%에 밀감을 재배하고 있고 소득의 대부분을 밀감에 의존하고 있어 거의 밀감 전업농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무이상 20무미만을 재배하는 농가는 경지면적이 1.58ha이며, 그 중 밀감재배면적의 비율은 60%이다. 10무 이하(10무 포함)의 농가는 농지면적은 13무로 0.87ha이며 밀감재배면적의 비율은 70% 정도이다.

조사대상 농가의 년령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50대 이상의 농가는 14호로 50대 미만의 농가에 비해 적었다. 중국 강서성 려천현의 밀감재배농가에서는 아직도 노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50대 이상의 농가는 평균농지면적이나 평균밀감재배면적이 50대 미만의 농가에 비해 조금 큰 편이었다.

밀감나무의 수령은 밀감의 생산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밀감나무의 수령은 표 2-3과 같다. 전체면적은 763.8무인데 거의 생산을 하지 못하는 어린 나무인 1-3년생이 148무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완전한 생산을 하는 6년생은 50%를 겨우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려천현의 밀감나무 재배가 최근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린 나무의 비율이 높아 소득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1. 조사 농가호수 및 면적

단위: 호, 무(%)

구분 / 규모	농가수	평균밀감재배면적	평균농지면적 (밀감면적 비율)
10무이하	4	9.0	13.0(69.2%)
11-19무	14	14.4	23.7(60.9%)
20무이상	18	29.2	36.6(80.0%)
계	36	21.2	28.9(73.3%)

표 2. 조사대상 농가의 년령별 분포

단위: 무(%)

구분 / 년령	농가수	평균밀감재배면적	평균농지면적 (밀감면적 비율)
40대미만	7	19.0	25.0(76.0%)
40대	15	19.4	23.7(81.9%)
50대 이상	14	24.3	36.8(66.0%)
계	36	21.2	28.9(73.3%)

표 3. 조사대상농가의 수령

단위: 무(%), kg

규모 \ 수령	1-3년	4-5년	6-46년
10무 이하	7.5(5.1%)	0.0	28.5(7.2%)
11-19무	12.5(8.4%)	50.8(23.0%)	138.3(35.0%)
20무 이상	128.0(86.5%)	170.0(77.0%)	228.3(57.8%)
계	148.0(19.4%)	220.8(28.9%)	395.0(51.7%)
생산량	2,500	120,707.5	682,098.8
무당 생산량(kg)	16.9	546.7	1726.8

주: 계의 비율은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임.

표 4. 자가 노력시간

작업단계별	자가노력(년)					
	남(일)			여(일)		
	10무이하	10-20무	20무이상	10무이하	10-20무	20무이상
구덩이 파기	0	133	130	0	70	30
거름주기 밑거름주기	180	595	1,038	70	460	675
거름주기 웃거름주기	105	498	963	60	380	610
제초	65	290	385	40	175	248
농약살포	120	555	810	100	377	505
관수	40	165	277	10	120	188
가지관리	125	655	780	70	495	495
열매솎기			30			
수확 및 선별	39	173	375	44	231	461
합계	674	3,064	4,792	394	2,308	3,216
농가당평균	168.5	218.8	266.4	98.5 (58.5)	164.9 (75.4)	178.7 (67.1)

주: 여성 노동력의( )내는 남자 노동력에 대한 비율임.

Ⅳ. 자가 노동력 이용형태

노동시간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생산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강서성의 밀감재배농민들은 생산비 개념이 없어 구덩이를 파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노동의 유휴화가 있었다.

표 4는 규모별 자가노동시간을 본 것이다. 작업은 구덩이 파기, 거름주기, 제초, 농약살포, 관수, 가지관리, 열매솎기, 수확으로 구분하였으며, 거름주기작업에 노동력을 제일 많이 쓴 것을 나타났다.

20무 이상의 대농의 경우 남자는 266일, 여자는 179일을 감귤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0-19무의 중농은 남자 219일, 여자 165일로 중

대농의 경우 보유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감귤노동에 투입하고 있었다. 10무 이하의 소규모농가는 남자 168.5일, 여자 98.5일로 규모가 적어 자가노동력을 완전히 고용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소농의 경우 수확 및 선별에 노동소요량이 적어 남녀 모두 자가노동을 완전히 연소하지 못하는 잠재실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력의 70%정도로 남자노동력을 여자 노동력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중심으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는 자가노동력의 투입일수를 무당으로 본 것이다. 규모가 증가하기에 따라 무당 자가노동력이 감소되고 있었다. 10무 이하의 농가는 무당 30일 정도 노동을 투입하고 있어 평균보다 57%의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11-19무에서는 40%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20무 이상은 15일 정도 투입하고 있어 평균보다 20%정도 더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Ⅴ. 고용 노동력 이용형태

여천현 감귤재배에서 고용노동은 남자의 경우 총 노동의 5%미만으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나 여자의 경우 가족노동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있었다.

표 6은 노동을 고용한 농가수와 노동유형을 본 것인데 남자의 노동은 구덩이파기와 거름주

표 5. 자가노동력 투입일수

단위:무, 일

구분 / 규모	면적(계)	자가노력 (남)	자가노력 (여)	무당 자가 노력(남)	무당 자가노력(여)	무당 총 노동력
10무이하	36	674	394	18.7	10.9	29.7 (157.1)
11-19무	201.5	3,064	2,308	15.2	11.5	26.7 (141.3)
20무이상	526.25	4,792	3,216	9.1	6.1	15.2 (80.4)
계	763.75	8530	5918	11.2	7.7	18.9 (100.0)

표 6. 작업단계별 고용노력

단위: 호, 일, 위안

작업단계별	고용노력							
	남				여			
	농가수	연인원수	총임금	평균임금	농가수	연인원수	총임금	평균임금
구덩이	2	60	2,700	45.0				
밑거름주기	3	134	6,060	45.2				
웃거름주기	2	50	2,500	50.0				
수확 및 선별	3	60	3,420	57.0	37	3,068	73,750	24.1
합계	10	304	14,680	48.3	37	3,068	73,886	24.1

기와 같은 강도가 높은 노동에, 여자의 노동은 수확과 선별에 집중되어 있었다.

구덩이파기 작업 중 대부분의 농가는 기계를 임대하여 구덩이를 팠고, 2농가는 남자 노력을 고용하여 구덩이를 팠으며, 4농가는 자기 노동력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팠다. 남자 고용노동력은 밑거름주기, 웃거름주기와 수확 단계에서 각각 3호, 2호, 3호의 농가만이 노동을 고용하고 있어 밀감재배 농가는 수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가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었다. 여자 고용노동력은 수확과 선별작업에 1호를 제외한 35호의 농가가 타인의 노동을 고용하고 있었다.

평균임금은 남자는 48.3위안, 여자는 24.1위안으로 남자임금이 여자임금의 두 배였다. 남자노임중 구덩이 파기와 웃거름주기에는 45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음에 비해 웃거름주기에는 50원, 수확과 선별에는 57원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노동의 강도와 관계없이 중국 농촌에서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급된 총임금은 88,566위안으로 호당 평균 2,460위안이며, 면적당으로 보면 무당 116위안을 고용노동의 노임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고용노동일수를 무당으로 본 것이다. 고용노동에서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무당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었다. 10무 이하의 농가에서는 평균보다 20%의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11-19무에서는 40%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20무 이상은 15%정도 더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11-19무를 경작하는 농가가 고용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본 무당 자가노동력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규모가 더 클수록 노동력 효율이 더 높은 것을 추측할 수 있어 노동력을 절약하고자 할 경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7. 무당 고용노력

구분 / 규모	면적(계)	고용노력 (남)	고용노력 (여)	무당 고용노력(남)	무당 고용노력(여)	총무당 고용노력
10무이하	36	0	192	0.0	5.3	5.3
11-19무	201.5	108	1138	0.5	5.6	6.2
20무이상	526.25	196	1738	0.4	3.3	3.7
계	763.75	304	3068	0.4	4.0	4.4

표 8. 규모별 고용노력 단위 : 호, 일

작업단계별	고용노력(년)											
	남(일)						여(일)					
	10무이하		11-19무		20무이상		10무이하		11-19무		20무이상	
	농농가수	연인원수	농농가수	연인인원수	농가수	연인인원수	농농가수	연인인원수	농농가수	연인인원수	농농가수	연인인원수
구덩이	0		1	30	1	30						
거름주기 밑거름주기	0		1	30	2	104						
거름주기 웃거름주기	0		1	30	1	20						
수확	0		2	18	1	42	4	192	14	1138	17	1738
합계	0		5	108	5	196	4	192	14	1138	17	1738
농가당평균	0			7.7		10.9		48		81.3		96.6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은 규모별로 고용노동을 본 것이다. 농가수는 노동을 고용한 농가의 수를 나타낸 것이며, 연인원수는 인원수에 일수를 곱해서 나온 것이고, 농가당평균은 규모별 농가수를 총인원수로 나누어 나온 것이다. 남자를 고용하는 것을 보면 10무 이하 농가는 남자 고용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11-20무의 농가는 평균 7.7명을 고용하였는데 수확작업에 두 농가, 다른 작업에서는 한 농가만이 노동을 고용하고 있었고, 20무 이상 농가는 10.9명을 고용하여 규모가 클수록 고용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력의 고용은 수확작업에 한 농가만을 제외하고 모든 농가가 고용하고 있었다. 수확작업에는 일가친척 등 지인을 동원하여 수확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노동력을 고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Ⅵ. 우리나라 감귤재배농가와 노동력 투입비교

지금까지 살펴 본 중국 강서성 감귤재배농가의 노동력투입을 우리나라 제주도의 노지감귤생산 농가의 노동력 투입과 비교해 보면 표 9와 같다. 앞의 중국노동력투입은 무당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10a로 환산하기 위하여 1.5배를 계산하였다. 또 중국은 노동투입이 일수로 계산되어 있으며 한국은 시간수로 계산되어 있다.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개략적으로 보면 중국은 감귤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275시간으로 한국의 3배정도이다. 또 중국에서는 남녀의 노동투입이 비슷한데 한국에서는 여성노동의 투입이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중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노동으로 자본을 대체한다. 이와 함께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단위면적당 노동투입이 많았다. 둘째, 중국의 농가는 생산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자가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기계를 사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기계를 사용할 경우 현금지출이 발생하나 자가노동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자가노동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9. 중국노동력투입의 한국과 비교

	중국(일수)				한국(시간수)		
노동력 구분	남녀구분	투입일수	비율	계	투입시간수	비율	계
자가노동	남자	16.8	48.9		38.9	38.4	
	여자	11.0	32.0	80.9	35.6	35.2	73.6
고용노동	남자	0.6	1.7		3.3	3.3	
	여자	6.0	17.4	19.1	33.5	33.1	36.4
계	남자	17.4	50.6		42.2	41.7	
	여자	17.0	49.4		69.1	58.3	
	계	34.4	100.0		101.3	100.0	

Ⅶ. 결론

2005년 말 현재 중국은 인구의 57%, 취업인구의 6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1차 산업 종사자는 44.7%로 3억 4천만명에 달하고 있다. 농업은 자급자족적인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 강서성 여천현의 감귤 농작업에 있어서 노동력의 이용형태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노동력을 절약하고자 할 경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무 이하의 농가는 평균보다 57%의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11-19무에서는 40%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20무 이상은 평균보다 20%정도 더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고용노동은 남자의 경우 총 노동의 5% 미만으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나 여자의 경우 가족노동의 절반이상을 투입할 정도로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있었다.

셋째, 평균임금은 남자는 48.3위안, 여자는 24.1위안으로 남자임금이 여자임금의 두 배였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의 농촌에서는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중국의 감귤생산농가는 한국의 농가에 비해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동에 의한 자본대체, 생산비에 대한 개념이 희박, 현금지출 감소성향 등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김재홍, 강일택, 2004, 잎담배 재배농가의 생산비 분석, 농업과학연구 31-2.
2. 김정호, 신동완, 이근상, 이상풍, 김석동, 이종수, 2006, 중국의 농업, 오성출판사.
3. 徐燕, 2008, 南丰蜜桔价格趨勢及成本收益情況的調查報告, 江西省撫州市成本調查隊.
4. 吳登開, 2000, 江西農產品品牌策略研究, 地方政府管理.
5. 정문섭, 박은철 편저, 2007, 중국의 농업과 농업정책, 농림부.
6. 陳有清, 2007, 种烟效益知多少－黎川、樂安、广昌三縣种植烤烟情况的調查, 撫州市統計局.
7. 통계청 2002, 농가경제조사지침서.